

01

[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조성과 충남 해양관광 발전전략]

해양관광 정책 추진 동향과 지자체의 대응과제 “ 충남 해양관광 발전방향 ”

김 영 준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

충남 해양관광 발전 방향

2015. 2. 5.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영준
yjkim@kcti.re.kr

차 례

1. 해양관광 활성화의 배경
2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특성
3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발전 방향
4. 충남 해양관광의 실정
5. 충남 해양관광 발전 방향

1. 해양관광 활성화의 배경

■ 관광수요의 증가와 다양화

- 대체휴일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광수요 지속 증가
- 활동추구형, 자기계발형 등 다양한 관광행태 요구 증가
- 레저선박(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), 조정면허취득자수(최근 5년간 2배 증가) 증가

■ 해양자원 관광 활용 기회 증대

- 경관, 활동적 측면에서 높은 관광잠재력 보유, 접근성 증대로 촉발

■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정책 전개

-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(2014) 등 정부 지원정책 추진
- 마리나 등 지자체별 해양관광 선점을 위한 관련 시책 추진

2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특성 : 자원적 측면

■ 자연조건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일정 수심과 파도, 기온이 전제되어야 해양관광 활동이 가능
- 4계절, 갯벌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해양레포츠활동 제약




■ 수역내 활동간 갈등 가능성 상존

- 해안은 어촌과 어항이 밀집하여 해양활동공간 확보 어려움
-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관련 규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 애로




■ 해양의 환경친화적 관리 전제

- 수변 경관 및 수질 관리가 관광활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
- 반면 관광 활동으로 인한 수역오염 가능성 상존

2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특성 : 시장적 측면

- 
여름철에 집중(당일 56%, 숙박 81%)**하는 극심한 계절성**
 - 관광기반시설 수용력 부족, 서비스 저하 등 초래
 - 관광수요의 변동성으로 수익성 낮고 민자유치 부진
- 
해수욕(51.3%), **철새갯벌관찰**(27.0%)**이 주류**
 -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 및 시설이 제공되지 못함
 - 해변 중심으로 어촌, 도서 등 해양 관광자원 활용 미흡
- 
동해안(50%) **집중에서 서·남해안으로 분산**
 - 기존 하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휴가 수요 동해안 집중
 - 최근 생태 및 체험관광시장 성장으로 서·남해안 관광 활성화

2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특성 : 정책적 측면

- 
개발 영역의 확대
 - 관광지, 해수욕장 등 해변에서 해상과 해중 등으로 공간 확대
 - 경관 감상·휴양에서 마리나, 레포츠시설 등으로 기반시설 다원화
- 
추진 방식의 다변화
 - 하드웨어 위주의 기반시설 개발과 더불어 콘텐츠·소프트웨어 중시
 - 독립적 지구에서 어촌·어항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발로 전환
- 
부처 및 지자체의 다각적 사업 추진
 - 문화체육관광부(관광지) 및 해양수산부(해수욕장, 마리나)의 정책 추진
 - 국무총리실, 환경부, 행정자치부, 산업통상자원부, 지자체 등 참여

3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발전 방향



기본방향

[지속가능성]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
적정 개발 및 보전·관리

- 육역과 통합 관리,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해변 개발, 청결한 해변 및 경관 관리

[지역중심성] 해양관광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
지역기반형 관광개발 추진

- 어촌·어항 중심 관광기반 정비, 연성적 사업 활성화, 지역사회 역량 제고

[산업기반성] 해양관광수요를 지속 창출하고
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육성

- 해양 레포츠 산업 지원, 기반시설 정비

3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발전 방향 : 지속가능성



육지부와 연계한 통합적 관광개발방식 적용

- 해양 관광개발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공급 과잉을 지양하기 위해서는
내륙과의 연계 관광시장 창출 필요
- 지자체간 협력, 부처간 체계적 조정을 통한 효율화 도모



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점형 해양 관광개발

- 거점형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고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개발
을 지양하고 개발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규제 개선



독특하고 쾌적한 해안 경관 및 환경 조성

-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관리, 환경처리시설의 보강, 청결한 해변 관리
등 해안 경관 관리, 이를 위해 경관관리계획 및 조례 도입

3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발전 방향 : 지역중심성

■ 어촌·어항 중심의 관광 사업 적극 추진

- 우리나라 주요 해양관광 잠재자원인 어촌과 어항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 관광자원화, 복합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추진
- ‘가고싶은 섬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시범사업 확대

■ 연성적 해양관광 사업 추진 활성화

-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, 체계적 관광홍보 전개, 인증제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 추진

■ 지역사회 중심의 해양관광 모델 개발

- 지역관광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, 학습기반 조성, 지역주민의 개방적 자세, 관광객 경험을 고려한 연출 등

3.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발전 방향 : 산업기반성

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원

-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마련,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방안 강구

■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정비

- 마리나, 해양레저센터 등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배후단지 등과 연계한 복합적 개발체계 구축
- 지역별로 해양관광개발 수단을 특성화

■ 국제 및 연안 크루즈상품 개발

- 항만별 기항지 관광여건 개선, 국제 크루즈 홍보 등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

4. 충남 해양관광의 실정



관광자원 및 시장 :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게 집중

- 충남은 서해안(태안, 보령, 서천)의 해양자원과 공주,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역사문화, 천안, 아산의 온천 등이 대표적 3대 관광자원
 - 16개 시·군 관광객 중 보령 등 서해안 6개 시·군에 53.6% 집중
- 충남은 해수욕장, 섬, 갯벌생태 등 3대 해양관광자원 보유
 - 충남내 해수욕장은 39개소로서 태안군 32개소, 보령시 5개소 등 갯벌이 없는 청정 사빈 보유
 - 원산도, 난지도, 외연도, 장고도 등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은 259개의 유무인도서 보유
 - 서산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과 서천군(4개소), 태안군(4개소)을 중심으로 한 어촌체험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음

4. 충남 해양관광의 실정



관광개발 및 정책 : 해양관광 발전 기반 미흡

- 충남 해양관광은 기반시설 부족, 상품개발 부족, 내적 역량 미흡 등 한계 보유
 - 마리나 등 해양체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해양관광 활동이 제공되지 못함
 -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,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등 거점형 관광개발이 추진중이나 사업기간 장기 소요
 - 워터파크 등 해수욕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자원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경쟁 심화
 - 충남의 해양관광축제, 어촌체험마을, 섬 등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해양관광 홍보를 위한 투입 미흡
 - 어촌, 어항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추진 역량 미흡

5. 충남 해양관광 발전 방향



해수욕장을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

- 사계절 관광프로그램 및 매력물 개발
 - － 대천, 무창포, 보령 해수욕장 관광인프라 개선
 - － 해수욕장의 리모델링, 프로그램 도입 및 비수기 관광프로그램 개발
- 기 개발지구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
 - － 상가밀집지역을 스토리 중심으로 리모델링, 마을해수욕장 관리운영 개선
 - － 중심지구에 테마가 있는 해양체험시설 신규 도입(예: 주문진 아라나비 등)
- 아름다운 건축과 쾌적한 해안 경관 조성
 - －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공편익시설 경관 정비
 - － 경관녹지 대폭 확충 및 청결한 해수욕장 만들기 운동 전개

5. 충남 해양관광 발전 방향



지속가능한 섬 관광 모델 확산

- 기추진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과 확산
 - － 난지도, 원산도 등 기존 관광객 방문이 많은 섬에 대한 관광기반 정비
 - － 외연도 가고싶은 섬, 장고도 명품섬 사업모델의 확산
- 선택적 섬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
 - － 접근성이 양호하고 추진의지가 높은 섬에 대한 선별적 섬 관광 활성화 추진
 - － 본격적인 관광활성화 이전에 지역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
- 무인도서 이용 개발 활성화
 - － 개발가능하고 경관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를 체계적 관광자원화
 - － 거리별, 자연여건별 잠재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

5. 충남 해양관광 발전 방향



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시설 및 상품 개발

- 복합형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확충
 - 안면도 등 기추진 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한 체계 개발
 - 보령, 석문 등 복합 마리나항만 조성, 주거시설·이벤트 등 차별화 모색
- 특색 있는 해양테마공간 조성
 - 연안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테마공간 조성
 - 서해안의 경관과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서해안걷기여행길 발굴(태안해변길 등)
- 해양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강화
 - 비수기 타개를 위한 대표 해양관광축제 및 이벤트 육성
 - 다양한 해양문화상품의 발굴 및 홍보 강화

5. 충남 해양관광 발전 방향



어촌·어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

- 어촌·어항의 명품 관광자원화
 - 어촌·어항에 문화적 품격을 더하여 차별화된 아름다움 창출
 - 어촌·어항을 6차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명품 어촌·어항 조성
-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
 - 서비스 매뉴얼 보급, 체계적 환대서비스교육 제공,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 등
 - 해수욕장 인증, 관광사업체 인증 등 충남도 차원의 관광서비스관리체계 마련
-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
 - 협력형 지역관광진흥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사 결정 및 사업 추진
 - 관광두레와 같은 지역관광 사업체 운영 모델 창출